

## 항생제 잔류를 방지하고 내성을 줄여야 한다



신 정 재 (사)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2005년 5월부터 배합사료 제조시 사용하는 항생·항균제가 대폭 감축되고 축산물 생산에 있어서 약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과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매스컴에서는 식품의 안전과 국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축산에 사용되는 항생·항균제를 부각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식품 안전 차원에서만 보면 사람에게 공여하는 식품의 가공 단계인 축산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최대의 위해요소가 되겠지만 사람에서의 항생제 내성발현이나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이 축산에 사용하는 동물약품에서 전적으로 기인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거나 몇몇 사례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은 옳은 시각이 아님은 물론 우리 축산인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물약품에서 기인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해요소로는 유해물질의 잔류와 약제간의 내성을 들 수 있는데 유해물질의 잔류는 동물약품을 제조하고 사용하는 우리 축산인들이 보다 안전한 약품을 개발하고 축산식품의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고려된 사용방법과 휴약기간만 철저히 준수한다면 100% 방지 할 수 있으며 내성문제는 사용자 주의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

“

**‘동물약품은 안전하다.’ 라는 대국민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는 표현 그대로 동물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사용하고 중복사용과 휴약기간 내에 약품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면 우리 축산식품에 대한 품질을 우리 스스로 보증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 축산물을 권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내성균 발현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다각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발현 메카니즘이나 발현요소간의 상호 관계 등이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인체병원에서 사용하는 항생·항균제가 주된 원인을 제거하고 있고 축산이나 식품·환경 분야로부터의 발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에 사용하는 항생·항균제가 인체 사용하는 내성의 주범으로 공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리 축산분야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고 조직적이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사실이 사실적으로 표면화되고 대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유없는 공매를 맞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야 한다.

‘동물약품은 안전하다.’ 라는 대국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표현 그대로 동물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법과 용량을 정확히 사용하고 중복사용과 휴약기간 내에 약품사용을 철저히 금지하면 우리 축산식품에 대한 품질을 우리 스스로 보증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우리 축산물을 권할 수 있을 것이다.

내성문제 또한 사람의 생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항생·항균제의 내성발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내성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하고 관리적인 차원에서 내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하나인 처방제 도입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도래하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 항생·항균제의 대체제 개발이 논의되고 있지만 단기간내에 항생·항균제를 대신하여 살균이나 멸균효과가 있는 ‘대체제’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보조요법제’ 개념으로 동물약품을 개발하여 항생·항균제 사용시기에는 사용량을 줄이고 휴약기간에는 질병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은 물론 축산인 모두 공동노력을 다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